

# 라깅을 통해 본 김수현 작가의 주체와 욕망 〈사랑과 야망〉, 〈내 남자의 여자〉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Su-Hyeon Kim Through Lacan: The Subject and The Desire

Focused on the Heroines of the 〈Love and Ambition〉, 〈My man's Woman〉

유진희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콘텐츠학부 방송극작과

Jin-Hee Yoo(bujhee2@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소외돼 온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에 관한 후속 연구로, 멜로드라마 <사랑과 야망>과 <내 남자의 여자>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김수현 작가 의식 저변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수현 작가는 자율 통제 의식에 의해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에서는 보기 드물게 홈드라마와 멜로드라마의 장르 선긋기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멜로드라마에서 두드러진 작가 의식이 발화된다. 본고는 멜로드라마를 통해 발화되고 있는 김수현 작가의 의식 심층을 탐구하기 위하여 라깅의 주체와 욕망 이론을 적용한다. 라깅에게 주체는 언어의 기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지만, 언어의 상징계는 불완전함으로 주체는 '존재'로부터 '소외'되고 '결여'와 '분열'에 시달리는 주체이다. 이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이 욕망은 전일체, 완전히 조화로운 상상계, 완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상징계의 불완전성을 거부함으로써 지속된다. 이 거부 과정에는 무의식적 환상이 작동한다. 라깅은 '환상 가로지르기'와 '분리'를 통해서만 주체의 진정한 탄생,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20년 세월의 간극 속에도 <사랑과 야망>과 <내 남자의 여자> 속 두 여주인공의 갈등의 요체는 동일하다.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주체의 결여와 욕망이 그것이다. 완전한 사랑에의 이상 추구,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며, 주체의 소외와 결여를 낳는 욕망의 고리 속에 주체의 진정한 해방, 자유를 향한 물음이 김수현 작가 의식 저변에 자리한 영원한 테제이다.

■ 중심어 : 김수현 | 멜로드라마 | 라깅 | 주체 | 욕망 |

## Abstract

This study is the subsequent full-scale research of a TV drama writer who has been out of scholarly pursuits as it explores Su-Hyeon Kim's underlying consciousness with focusing on her heroines, the <Love and Ambition> and <My Man's Woman>. The author Su-Hyeon Kim clearly distinguishes a TV melodrama from a TV home-drama by her own self-control, which is a rare case in TV drama genres, therefore, her consciousness lights up at her melodrama. This study applies Lacanian theory to the author's melodramas for examining the author's underlying thought. For Lacan the subject is an 'alienated', 'privative', 'fractured' 'being' as an imperfect language, the symbolic order, forms the subject through its signification. The subject desires the other's desire, and wants to become an object for the other's desire. The desire constantly demands an integral world, a perfect love, the wholly harmonious imaginary order. And it lasts up as it refuses the symbolic order's imperfection while it works its unconscious fantasy. Lacan states that only the 'traversing the fantasy', 'separation' would give birth to the real, liberated subject. Despite a 20-years of rift within two works, the <Love and Ambition> and <My Man's Woman> have an identical conflict core, that is a subject's constitutive, fundamental privation and desire of a human being. Su-Hyeon Kim's underlying consciousness complies with her continued theses of an inquiry into the subject's real liberation and freedom when desire of the rings produces the subject's alienation, privation, and the pursuit of a impossible perfect love.

■ keyword : Su-Hyeon Kim | Melodrama | J. Lacan | Subject | Desire |

## I. 연구 목적

본고는 지금껏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소외돼 온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에 관한 연구 작업의 지속으로, 김수현 작가를 논한 선행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1]. 선행 연구에서 필자는 장르 문법과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해 김수현 작가의 차별성과 경향성을 제시 했다. 특히 선행 연구 작업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이다. 작가가 멜로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심리추적과 이분법 파괴’의 차별성과 ‘가부장 중심 젠더 이데올로기 전복’의 진보적 경향성은 안정과 변동의 서사 전략을 구사하며 인본주의적 경향성을 보인 홈드라마에 비해, 김수현 작가의 차별성과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도드라지게 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대적이라 함은 선행 연구에서도 분석했듯이, 김수현 작가는 장르별로 갈등의 소재, 정도, 해결 방식과 주제 의식에 있어 명확한 선긋기를 함과 동시에 시청자도, 방송사도 아닌 스스로의 자율 규제 의식에 의해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홈드라마 장르에서 보인 김수현 작가의 차별성과 경향성은 스스로의 자율 통제 의지와 의식에 의해 멜로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멜로드라마에서 발화되고 있는 김수현 작가의 차별성과 경향성에 관한 심층 분석이야말로 작가의 의식 저변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드라마 작가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장르 이론과 관련해 TV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장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많은 비평가 견해를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더한다. “TV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장르의 순도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고(Feuer, 1992), TV 장르와 편성 포맷은 대단히 혼재되어 있으며(Allen, 1989) 더욱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터너(G. Turner)의 요약[2]이 그렇다. 하지만 불륜드라마로도 분류[3]되는 불륜의 재제 멜로드라마 경우 김수현 작가는 주말연속극 형태로 편성된 홈드라마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반면 <엄마가 빨났다>와 같은 시기에 방송돼 시청률 1위 경쟁을 벌였던 문영남 작가의 주말연속극 <조강지처 클럽>(2007년 9월 29일 ~ 2008년 10월 5일, SBS)은 불륜이 소재가 된 홈드라마와 멜로드라마가 혼재된 대표

적 비교 사례이다. 또한 김수현 작가는 미니시리즈 형태가 자리 잡은 1990년 이후 들어 특히 편성시간대별 장르 구분이 확고해져 <사랑이 뭐길래>(1991, 11, 23~1992, 5, 35, MBC)를 필두로, <목욕탕집 남자들>(1995~1996, KBS), <내 사랑 누굴까>(2002, KBS), <부모님 전상서>(2005, KBS), <엄마가 빨났다>(2008, KBS), <인생은 아름다워>(2011, SBS) 등 주말 연속극은 홈드라마로, <두 여자>(1992, MBC), <청춘의 덫>(1975, MBC, 리메이크 1999, SBS), <불꽃>(2000, SBS), <내 남자의 여자>(2007, SBS) 등 미니시리즈에는 멜로드라마를 등장시킨다. 하지만 편성 시간대별 김수현 작가의 홈드라마와 멜로드라마의 장르 구분에 있어 멜로드라마를 불륜드라마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한다.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는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불륜뿐만 아니라 운명적 장애 등이 사랑의 의미 추구 재제로 흑간 등장하기 때문이고, <완전한 사랑>(2003, SBS), <사랑과 야망>(1987, MBC, 리메이크 2006, SBS), <천일의 약속>(2011, SBS)이 그 예이다. 하지만 주말연속극으로 방영된 홈드라마 경우, 예외 없이 불륜 등 소위 자극적 소재는 배제한 채 대가족을 포진시켜 3세대의 결혼을 중심으로 일상을 꼼꼼히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편성시간대를 중심으로 한 김수현 작가의 장르별 특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사회 규범적 기능주의 잣대 혹은 페미니즘 시각의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는 대신, 작가의 내적 자율 규제에 더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시청 층을 대상으로 한 주말연속극으로 편성되는 홈드라마보다는 작가의 내적 자율 규제 의식이 덜한 멜로드라마에서 발화되고 있는 김수현 작가의 의식 그 심층 저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 대상과 방법

### 1. 연구 대상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에 발현된 저변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멜로드라마에 관한 장르 논의가 먼저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드라마에 관한 정의는 우연성과 비극성이 과장된 정서에 기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내러티브, 특히 도덕성이 강조되는 장르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멜로드라마 장르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룩(P Brook)이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강력한 감정성에 몰두/도덕적 양극화와 도식화/존재와 상황과 행동의 극단화/명백한 악행/선한 자에 대한 박해/궁극적으로 미덕에 대한 보상”[4]으로 규정한 것이 그렇다. 하지만 이처럼 여성용 오락 생산물쯤으로 진지한 논제 대접을 받지 못하던 멜로드라마가 페미니스트 영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 관습의 질서와 규칙, 그 모순을 드러내는 시스템 속에서 개인 연애 담론을 내러티브 욕망으로 풀어가는 성 정치 이데올로기 연구로 확장, 재정립[5]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멜로드라마 장르 연구의 시선 변화와는 별개로 김수현 작가 경우, 저작 초기부터 과장된 정서와 감상주의에 의존하는 사랑의 환상 이야기 대신 가부장 이데올로기 관습의 모순과 틈새를 드러냈고, 엄혹한 유신 시절 불륜, 혼전 동거 등 윤리적 논란을 빚으며 중단, 조기 종영 사태를 빚은 초기 멜로드라마 <안녕> (1975, MBC), <후회합니다> (1977, MBC), <청춘의 덫>(1978, MBC) 사례가 반증될 수 있다. 이처럼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는 작가 스스로의 장르별 내적 규제 완화와 일관되게 진보적 이데올로기 의식을 중층적으로 내포해 온 작가 의식의 발현체라는 점에서 작가의 의식 저변을 탐구하는데 유효하다. 본 연구는 작가의 멜로드라마들 가운데에서도 정통 멜로물로 주목 받았던 미니시리즈 <내 남자의 여자>(2007, SBS)와 김수현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서사멜로 드라마 <사랑과 야망> (1987, MBC, 리메이크 2006, SBS)의 주인공, 화영과 미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내 남자의 여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장르 혼재의 TV 드라마 틀 속에서 불륜을 소재로 한 정통 멜로였다. <사랑과 야망> 경우는 일반적으로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는 점 이외에 산업적 외연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김수현 작가의 지위와 더불어 조기 종영한 <청춘의 덫>(1999, SBS 리메이크)을 제외하고 유일한 리메이크 작이란 의미, 그

리고 20년을 관통한 작가의 의식 변화를 주목해서이다.

또한 <내 남자의 여자>와 <사랑과 야망>의 두 여주인공 이화영과 김미자는 김수현 작가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들 가운데서도 특히 그 심리적, 성격적 캐릭터 특성에서 대단히 유사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1958년 겨울부터 1987년 겨울까지 전후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서사멜로 <사랑과 야망>(2006년 리메이크 작품 경우는 1992년이 최종회인 81회의 마지막 시점으로 그려진다)의 여주인공 미자는 전쟁 통에 아들을 잃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버지를 둔 어두운 인물로 가솔, 상경, 톱스타의 인생 역정을 독립적으로 쟁취하는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유명 감독과의 첫 결혼, 사별, 그리고 첫사랑인 박태준과 재결합하며, 외견상 부침 많은 인생이지만 사랑의 완성을 이뤄내는 전형적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자는 태준과의 결합 이후 히스테리와 강박관념에 걸린 시달리며 끝내 불행하다. <내 남자의 여자>의 화영은 유일한 친구의 남편인 홍준표와 불륜 끝에 온갖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실 혼 관계에 들어가지만 사랑, 상대 남에 관해 끝없이 회의하고 갈등하며 스스로 파국, 결별, 홀로서기를 선택하는 인물이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도발적인 이 둘은 치명적 매력으로 남성을 죽여이나 고통 등 불행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인 소위 팜므 파탈(femme fatale) 유형이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멜로드라마에서 흔히 ‘악녀’나 ‘유부’로 평면적으로 그려져, 여주인공의 순수함을 확대시켜주는 실질적 조연 역할을 담당하는 유형이지만, 김수현 작가 경우 이 둘, 팜므 파탈을 여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 관습과 통념에 반발하며, 사랑의 본질, 실체와 욕망, 그리고 주체에 관해 집요하게 파헤친다. 바로 이 점에서 <사랑과 야망>의 미자, <내 남자의 여자>의 화영은 김수현 작가의 차별성과 경향성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볼 수 있는 대상이고, 또한 20년 시간의 궤적을 되짚는 작가의 의식 심연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연구 대상이다.

## 2. 연구 방법

본고는 욕망의 실현에 있어 주체적이고 사랑의 실체에 관해 끊임없이 회의, 갈등하는 두 인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 라깡(J. Lacan)의 정신분석 이론을 연구 틀로 적용한다. 철학, 문학, 문화학, 심리학,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학문으로 뿌리내린 정신분석학 역사에서 ‘프로이드의 복귀’를 주창하며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 돼있다’는 대명제로 오늘날의 정신분석학 기초를 재정립한 라깡의 정신 분석 이론을 적용함은 본고의 연구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타당한 일이다.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는 데카르트(R. Descartes)의 근대 철학의 대명제를 뒤집은 라깡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 한다”[6]는 정의를 통해 사유의 존재와 존재의 주체를 분리하며, 주체의 소외와 결여, 분열을 설명해냈다. 이러한 주체의 소외와 결여, 분열은 라깡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욕망(desire)이론 이어진다. 본고는 이 같은 라깡의 주체 개념과 욕망 이론을 준거틀로 <사랑과 야망> <내 남자의 여자>의 미자, 화영을 분석함으로써, 김수현 작가 의식 저변을 탐구한다.

### III. 라깡의 주체(Subject)와 욕망(Desire)

라깡의 주체는 구조주의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 코기토(Cogito)의 이성적, 주체와 대립하는 구조주의는 주체의 행위와 의미가 구조의 요소들이 맺는 관계와 위치에서 발생하는 부차적 결과물일 뿐[7]으로, 레비-스트로스를 위시한 구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주체는 무의식과 문화적 중층결정에 좌우되는 빈 주체이다[8]. 라깡에게도 주체는 사유하는 주체와 존재하는 주체가 ‘에르고(ergo),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분리 불가능한 것, 단일하고 투명하고 통일 된 것이 아니다. 라깡에게 주체는 사유의 주체와 존재의 주체가 분열된 것이다. 라깡은 주체 개념에 있어 구조주의 시각에 더해 소쉬르(F.Saussure)로부터 연원하는 공시적(synchrone) 구조주의 언어 연구 관점을 적용,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 돼있다”며 무의식의 언어 효과를 주장했다. 이는 무의식의 개념을 실체적 내용보다 형식적 개념으로 정의한 것으로 라깡에게 인간의 무의식은 단지 억압된 생물학적 본능의 집합체가 아니라 상징적, 언어적 가치

와 구조를 가진 것이다[9].

라깡에게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란 ‘사유의 주체’를 상징계 안에서 기표(시니피앙, signifiant)로 대리하고 거기서 의미를 얻게 하는 것으로, 기표로 대리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의 주체’와 ‘분열’을 발생시킨다. 라깡은 소쉬르의 언어 도식에서 기표(시니피앙, signifiant)와 기의(시니피에, sinifier) 위치를 바꿔 기의를 분리선 아래 위치시킴으로서, 기의는 억압되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억압된 무의식적 내용, 기의는 은유와 증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소쉬르는 기호(sign)를 음운론적 요소인 기표와 개념적 요소인 기의로 구분하고 이들의 연합이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지만, 라깡은 음운 요소와 개념 요소의 안정적 대응을 통한 의미 고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10]. 후기 구조주의로도 분류되는 라깡은 이처럼 소쉬르가 제시한 언어적 기호의 작용, 즉, ‘기표’와 ‘기의’의 대칭적 통일, 자의적 결합을 통한 의미 고정은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조주의가 간과한 기호와 주체의 관계도 제시해, 주체는 불가능한 의미 고정과 도달할 수 없는 기의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표에서 기표로 미끌어진다’[11]고 말한다. 이처럼 라깡에게 주체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지만, 언어의 불완전성으로 주체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 할 수 없는 채, 존재 결여에 시달리는 존재이다. 즉 라깡의 주체는 언어의 기호 작용(signification)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나’라고 말하는 언어의 기호 작용에 의해서 주체가 형성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존재와의 일치는 사라진다. 라깡에게 주체는 존재로부터 ‘소외’된 주체이고, ‘존재 결여’와 ‘분열’에 시달리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라깡에게 주체란 단지 존재로부터 ‘소외’된 ‘빈 주체’로 ‘결여’와 ‘분열’만 자리한 존재일까? 불완전한 언어에 예속되어 도달할 수 없는 기의를 향해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기표에만 허무하게 의존하는 존재일까? 여기서 우리는 라깡의 욕망 이론을 주목한다, 자유 의지를 가졌음에도 구조적 결정론과 예측론을 주장한 구조주의자의 수동적 ‘빈 주체’와는 달리, 라깡의 주체는 ‘욕망의 주체’로 수동성을 극복한다.

라깡의 욕망(desire)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의미에서의 욕망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라캉의 욕망은 자본주의적, 성적, 사회정치적 의미의 욕망으로 단순히 규정지을 수 없다. 라캉에게 욕망이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인간의 필연적인 근원적 결여 속에 발생하는 능동적 행위이다. 라캉의 욕망은 인간의 전제 조건으로, 자연 현상과 부딪힐 때 발생하는 생물학적 본능, 즉 '욕구(needs)'와는 다른 인간만의 행위이다. 욕구의 대상은 추위나 배고픔 등을 해결해 주는 자연적·물리적 사물이다. 반면 욕망은 인간만이 가능한 '요구(demand)'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욕망의 대상은 '타자의 욕망'이다. 말 못하는 아기가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생물학적 욕구가 전부가 아니다. 자궁에서의 충만함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대타자(the Other)의 무한한 사랑도 '요구'한다. 여기서 대타자라 함은 에반스(D. Evans)의 해석에 따르면 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타자성'의 영역의 총칭으로, 때에 따라서는 다른 대상을 지시하기도 해서 타자 중에서도 중요한 타자인 부모(특히 어머니)이기도 하고, 상징계, 즉 언어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징계(le symbolique)로서 대타자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장소이다[12]. 하지만 라캉에게 대타자 역시 완전하지 않다. 대타자 역시 불완전하고, 결여에 시달린다. 라캉에게 '요구'란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에 대한 갈망과 이런 대타자에 의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은 불완전하고 결여에 시달리는 대타자에 의해 결코 충족이 가능하지 않다. 이 충족되지 않은 '요구'의 '잔여'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즉 라캉 욕망 이론의 핵심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여와 결합된 개념으로,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며, 욕망의 대상도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며, 역시 결여된 타자에 의해 본질적으로 어떤 실재적 대상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라캉에게 욕망은 항상적(constant) 기제이다. 즉 빈 주체지만 인간이므로 언어의 영역인 상징계에 진입해, 끊임없이 생성하고 환유(metonymy)하는 욕망을 작동시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갖는다. 환유는 고전적 의미에서는 일종의 대유법으로 부분과 전체, 원인과 결과 등 인접성을 가진 두 단어가 만들어 내는 비유적 효과

를 일컫는다. 라캉은 욕망을 이 환유로 설명하는데, 라캉에게 환유는 우리가 흔히 수사법에서 일컫는 고전적 의미의 환유 대신, 의미화 효과는 실패한 채 언어를 지속시키는 연결로서만 의미된다[13][14]. 이 같은 욕망의 환유 개념은 결국 욕망이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케 한다. 즉 라캉에 따르면, 욕망의 차원은 어떤 실재적 대상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결여'와 결합하여 등장하고, 욕망을 작동시키는 욕동 대상이란 결국 욕망 대상의 끊임없는 환유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주체가 갖는 개별성과 특수성은 부재와 결여, 나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욕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이다. 라캉은 이와 같은 욕망의 능동성과 역동성, 작동 과정에 관해 주체와 타자가 맺는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즉 라캉에 따르면 형성된 욕망이 지속되는 과정은 실재(le réel), 상징계(le symbolique), 상상계(l'imaginaire)가 설명한다. 라캉의 실재·상징계·상상계에 관한 일반적 원론은 인간 의식(psyche)의 세 가지 국면에 관한 개념으로, 인간은 출생 이후 대략 6개월 동안 전적으로 상상계에 속해,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고, 이후 18개월까지 이미지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다가 점차 대상이 허구임을 깨닫고 상징계로 진입한다고 설명한다. 또 실재는 말하는 존재로서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인식이나 기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필자의 해석으로 단순화 한다면, 상상계는 언어 '이전'의 세계, 상징계는 언어 '속'의 세계, 실재는 언어 '밖'의 세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라캉은 특히 주체와 대상이 미분화된 상상계 초기 국면을 주이상스(희열, la jouissance)로 규정하며,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의식의 일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즉 불완전한 상징계에 의해 체현(가시화)되는 실재(사실은 궁극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순수차이)가 의미 고정된 조화로운 전일체(全一體) 상상계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상징계의 결여와 불완전성을 '거부함'으로서 욕망은 지속된다. 욕망이 야말로 라캉이 얘기하는 인간의 특수성인 동시에 보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라캉에게 욕망은 말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이 타자와 형성하는 관계 속에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리고 능동적 주체의 방증이 되

는 것, 인간이 인간임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본고가 김수현 작가의 의식 분석에 준거 틀로 적용하고 있는 라깅의 주체와 욕망 이론 중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남겨진다. ‘환상(fantasy)’ 개념이다. 라깅은 타자의 욕망으로서의 인간의 욕망이 형성되는 ‘주체적인 공간’을 중시하는데 이것이 ‘환상(fantasy)’이다. 환상은 인간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수동적으로 응대하는 대신, ‘주체적’ 응답인 무의식적 환상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 라깅의 설명이다. 라깅은 ‘존재 결여’와 ‘분열’된 주체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도달할 수 없는 의미고정과 전일체로서 불가능한 실재를 찾아 끊임없이 ‘미끄러지지’만,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분리’ 과정을 거쳐 존재의 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 무의식적 환상을 타파할 때 존재의 소외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주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깅은 이를 ‘환상 가로지르기(traversée du fantasme)’로 부른다. 임상적 차원에서 사용된 라깅의 이 ‘환상 가로지르기’에 관해 김석(2007, p98)은 “피분석가는 결국 분석가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주체적 욕망의 구조에 종속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15]. 슬로바키아의 라깅으로 불리는 지젝(S. Žizek)의 경우, 라깅의 ‘환상’ 개념을 두 가지 테제로 정리해, 1)현실은 욕망의 실재를 은폐할 수 있도록 하는 환상 구성물이다 2)이런 환상은 그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단단한 잔여물, 잉여 향락(surplus enjoyment)을 남긴다[16]는 것이다. 이토록 거부하기 힘든, 돌파하기 힘든 환상의 패러독스, 이중 구조는 어쩌면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능동적인 주체적 행위이자, 또한 극복해야 할 주체적 행위이다. 홍준기(2002)의 표현을 빌자면, “환상 가로지르기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주체의 의무”이며, 따라서 “정신분석학은 기억할 수 없는 나의 무의식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윤리적 주체 이론”[17]이다. 즉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주체가 ‘분리’될 때, 타자의 욕망 속에 소외된 자신의 진정한 주체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이고, 주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주체이다.

#### IV. 멜로드라마에 나타난 김수현 작가의 주체와 욕망 : 〈사랑과 야망〉, 〈내 남자의 여자〉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 1. 〈사랑과 야망〉 여주인공의 주체와 욕망

〈사랑과 야망〉 여주인공 미자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로, 드라마 작가 최초 평전인 “김수현 드라마에 대하여” 속 임우기(1998)는 “작가 의식의 심연을 이해하기 위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인물”, “현존 속에서 부재를 겪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18].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고향 춘천의 작은 사진관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절망감 속에 사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는 미자는 화려하고 뜨거우거나 하면, 반항적이고 도전적이며, 약한가 하면 모질고, 계산적인가 하면 즉흥적이고, 자학적인가 하면 가학적인 복잡한 인물[19]로 그려진다. 미자는 김수현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느 여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일종의 결함을 지닌 인물로, 고아인 <겨울새>(1992, SBS)의 영은, <청춘의 덫>의 윤희, 결혼 20일 만에 남편이 식물인간이 돼 생과부나 다름없어지는 <배반의 장미>(1990, MBC)의 지영 등이 그 예이다. <사랑과 야망>의 미자는 전쟁 통에 아들을 잃고, 실성해 죽음에 이른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결함을 지닌 인물이다. 미자의 결함은 앞서 예로 든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 여주인공들의 결함과 함께 자칫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해석된 라깅을 적용하면 평가 절하될 수 있는 결함이다. 즉 낭만적 사랑은 허구에 불과하며, 불완전한 반쪽이 만나 완전한 전체 혹은 소외를 극복한 형태로서의 사랑은 기만이고, 착각이고, 상상계적 허구에 불과하다는 라깅에 대한 해석[20]이 그러하다. 하지만 미자의 결함은 허구와 기만과 착각의 사랑 담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어진 결함이 아니다. 결함을 지닌 여주인공으로 여타의 멜로드라마 여주인공들처럼 상상계적 사랑의 허구와 기만에 의해 위장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자는 김수현 작가 멜로드라마의 여타 주인공들과도 달라서, 앞서 예로 든 여주인공들이 환경적 결함으로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질곡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물들이라면, 미자

는 ‘도덕적 결함’까지 가진 소위 팜프파탈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의 머리와 의지로 대기업 회장으로까지 자수성가하는 냉철한 능력자 태준 인생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일 정도로 미자는 둘의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때로는 가학적이기 까지 하다. 태준과의 불안한 첫사랑 관계에서 먼저 이탈하고, 이후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첫사랑과의 운명적 재결합 (그것도 결혼 경력을 지닌 채) 이후에도 끊임없이 회의하고, 이탈을 꿈꾸는 미자는 라깡이 분석한대로 ‘상상계적 기만과 허구와 착각인 사랑’의 주인공이 아니다. 혹은 시청자들에게 이런 허구의 사랑을 체현시키는 인물이 아니다. 미자는 통속극으로 폄하되는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주체의 표상’이다. 모성의 ‘부재’와 부성의 ‘결핍’이라는 드라마 속 외연은 존재에서 ‘소외’된 인간 본연의 ‘결여’에 시달리는 ‘주체의 표상’이다. 또한 이탈을 꿈꾸지만 끊임없이 태준과의 관계, 사랑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드라마 속 미자의 외연 역시 ‘분열’에 시달리는 ‘주체의 표상’이다.

또한 미자의 욕망은 라깡이 규정한 ‘타자의 욕망’의 다름 아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아들의 죽음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버지의 욕망이 미자의 초반 욕망이었다면, 상징계 속에 진입한 이미지의 허상, 스크린 속 여배우로 성장하고 자리한 것 역시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한 욕망의 주체로서의 미자이다. 또한 아버지에서, 첫 결혼 대상자인 나이 차이 나는 감독, 그리고 평생을 매달리고, 회의하고, 이탈을 꿈꾸게 하는 태준이라는 대상 모두 미자의 욕망의 환유이다. 미자의 욕망은 앞서 언급한 ‘타자성’을 의미하는 상징계로의 진입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환유 그 자체로서, 라깡의 욕망의 환유 개념 그대로 결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의 모습이다. 여기서 본고는 미자라는 인물의 의식 심연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주요 특징, 미자의 히스테리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병리현상이 ‘안나 O’ 라는 여환자의 히스테리였고, 라깡 역시 프로이트의 재복귀를 주창하며 히스테리에 주목했고, 히스테리에서 욕망이라는 개념을 발견한다. 라깡은 히스테리자(者)를 ‘욕망을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주체

로 규정한다[21].

라깡에게 히스테리자는 더 이상 정신적 결함을 지닌 병리적 현상자, 환자가 아닌, 욕망의 실체에 관해 강력하게 반응하는 적나라한 주체인 셈이다. 미자는 이런 점에서 히스테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태준과의 소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결혼 이후 미자가 보이는 행태는 시청자들에게는 대단히 낯선, 불편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 감정의 불안 속에 변덕스러움과 예민함, 종잡을 수 없는 발작적 행동 등 소위 히스테리컬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며 태준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와 주변을 힘들게 한다. 미자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순결한 희생양이거나 혹은 저항적 희생양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에게 매몰돼있는 형상으로, 피해 의식과 열등감 속에 대립각을 세운 태준모의 사망 이후에도 이 같은 병적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최종회에서조차 미자와 평생 우정을 나누며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정신적 의지처 역할을 하는 시누이의 남편이자, 태준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분석가의 설정 역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홍조마저 “참 힘든 사람이야”라며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이다. 또한 1987년 작품 최종회 경우에는 늙은 홍조가 정신과 환자들의 사이코드라마를 유심히 보는 장면이 나오는 반면, 2002년 리메이크작의 경우 이 부분은 생략되는데, 분석가로서 홍조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피분석가인 미자의 결여와 고통 자체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피분석가와 분석가(작가)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랑과 야망>의 엔딩 역시 낯선 미자의 모습만큼이나 생경하다. 가족 모임을 히스테리 발작성 기괴한 웃음으로 망치게 만든 미자는 엔딩에서조차 시청자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럽게 발작성 울음을 이어가며 ‘아버지, 아버지’를 되뇌이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미자의 이 마지막 대사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히스테리자는 최초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상실한 최초의 완전한 사랑을 대신해주는 다른 대상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결여로 고통 받는 주체이다. 미자는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주인, 무의식에 자리한 상상계의 주이상스를 갈망하지만, 결여된 상징계의 균열과 틈새 속에 욕망의 환상구조를 깨

지 못한 채, '욕망을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주체',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 결여와 욕망의 패러독스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 2. <내 남자의 여자> 여주인공의 주체와 욕망

<내 남자의 여자> 화영은 <사랑과 야망> 미자와의 20년 세월 간극을 성격, 심리적 유사성으로 메운다. 이 유사성은 통칭 '팜프 파탈' 유형의 특성으로 간략하게 특정할 수 있다. '팜프 파탈'로 주인공 역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멜로드라마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고, 동시에 김수현 작가 작품에서도 <사랑과 진실> (1884~1985, MBC)의 공동 여주인공인 미선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다. 물론 '팜프 파탈'의 용어 적용 여부에 따라 이들 모두를 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주도적이며, 주체 의식과 욕망 추구에서 통칭 '팜프 파탈'에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화영 경우, 주체 의식과 욕망 추구에서 미자와 세월을 관통하는 유사성을 지닌 동시에 더욱 진보한 양태를 보인다. 미자가 히스테리자로 분열과 결여된 주체의 욕망의 본질을 보여주었다면, 화영은 불륜이라는 가족 관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긴장의 갈등 유발자, 주동자에서 스스로 이별과 파국을 선택하는 주도자로, 작가의 진보적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의 대변자이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김수현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논함이 아님을 주지하며, 이 같은 진보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라강의 정신분석의 끝(목표)이라는 의미, '환상 가로지르기'에 성공해 '분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의미로 다시 부여한다.

이처럼 주체 의식과 욕망 추구에서 진보한 양태를 보인 화영이지만, 부성과 모성, 대타자의 부재, 결여로 시달리는 주체의 표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재미 성형외과의사로 어머니의 허영심, 욕망을 채워주어야 했던,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앵벌이'였다. 화영의 주체로서의 결여는 가장 친한 친구 지수의 남편 준표와의 불륜 끝에 사실혼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상징계의 틈새, 사회의 질서, 윤리

의 그물망을 벗어난 채 전일체의 주이상스를 누리며 완전한 존재가 되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보인 준표의 결여(상징계의 질곡에서 보인 우유부단함)는 화영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이 상상계의 허위와 기만임을 깨닫게 한다. 최종회(24회)에서 화영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언하고, 무책임을 탓하는 준표를 향해 "나약한 지식인, 기회주의 지성인, 예고당어리 대학교수"라며 "내가 그런 당신 그림, 당신 실체는 내 망상"이라고 자인한다. 또한 타자, 혹은 대타자로서의 완전한 사랑의 요구가 좌절됐음을 시인하며, "사랑은 올인 하는 것" "목숨을 거는 게 올인"이고 "챙길 거 챙기고 남길 것 남기는 건 올인이 아니다"고 절규한다. 대신 화영의 선택은 "자존심이 나와, 내 전부야, 만신창이 된 내 자존심 조각 모아 다 되찾았다"며 매달리는 준표와 이별의 파국을 선택한다. 히스테리자로서 끝내 자신 주체를 찾아 긴 울음을 울던 마지막 미자의 모습과는 달리 결여된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했지만, 타자의 결여를 깨닫고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찾는 모습의 화영은 이런 점에서 진보한 주체이다. 물론 화영 역시도 라강의 정신분석의 목표점인 완전한 '분리', 진정한 주체의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오열하는 장면, 유일하게 가족의 사랑을 보여준 남동생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머니에게 일단은 돌아가겠다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김수현 작가의 진정한 주체 해방을 향한 인간 탐구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 V.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는 비록 대중을 소비자로 한 방송이라는 산업의 생산물로 저작되지만, 대단히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다. 20년 세월의 간극 속에도 <사랑의 야망>과 <내 남자의 여자>의 여주인공들이 보인 동일한 갈등의 요체는 세월을 관통하는, 인간의 본질과 근원과 연관된 것이다. 즉 인간이란 존재의 주체와 욕망에 관련된 대단히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 요체이다. 두 여주인공은 '결여'와 '분열'



에 시달리는 주체의 표상이다. 또한 이들은 인간이 가진 속명적인 욕망의 고리 속 인물들로, 결코 채워 질 수 없는 완전한 사랑에의 요구와 이것의 '잔여'로 욕망을 낳고, 이 욕망이 결여된 이들 인간적 주체를 생성하며, 다시 이들은 끊임없이 결여를 메우기 위해 욕망한다. 이들 주체의 욕망의 대상 역시 결여된 타자의 욕망이다. 이런 타자의 결여를 깨닫고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분리 될 때 주체는 진정한 해방, 자유를 찾을 수 있음은 이들 여주인공은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분석자로서의 작가에게 피분석자인 인간 탐구 대상이다. 동시에 작가 자신의 투사(projection)로, 작가는 분석가이며 동시에 피분석자이다. '결여'에 시달리면서도 '욕망'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탐구가 바로 김수현 작가 의식 저변에 자리한 가장 큰 욕망이다. 바꿔 말하면 완전한 사랑에의 이상 추구,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며, 주체의 소외와 결여를 낳는 욕망의 고리 속에 주체의 진정한 해방, 자유를 향한 물음이 김수현 작가 의식 저변에 자리한 영원한 테제이다. 이는 또한 40년 넘는 최고 인기 작가의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인간 본질과 근원을 탐구하는 김수현 작가의 주체와 욕망 의식이야말로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테제로, 작가가 획득한 대중성은 이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TV 매체의 한계 혹은 대중 작가로서의 한계로 인하여, 이 같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인간 탐구 작업이 멜로드라마 장르의 틀 안에 갇혀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김수현 작가만의 차별성이 대중 매체에 의해 아류작으로 재생산되는 경우, 주체와 욕망의 표피만 창조, 왜곡, 과장되게 묘사되면서 오히려 기존 멜로드라마에 부과되던 부정적 평가를 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김수현이라는 인기 드라마 작가가 지닌 한계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라깁의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한 본고의 논의는 라깁 이론의 광범위함을 재고했을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추후 텍스트 작업 분석 역시 요구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유진희, "김수현 멜로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내 남자의 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175-183, 2009,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엄마가 빨났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pp.165-111, 2010.
- [2] 글렌 크리버· 토비 밀러· 존 텔로크 엮음, 박인규 역, *텔레비전 장르의 이해*, 산해, 2004.
- [3] 원용진, "장르변화로 읽는 사회", *언론과 사회*, 통권 16호, pp.100-133, 1997.
- [4] P. Brook,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이수연, *한류드라마와 아시아 여성의 욕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p36-37에서 재인용.
- [5] 유지나,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 [6] J. Lacan, *Écrits*, Paris:Seuil, 1966, 홍준기, *자끄 라깁, 프로이드로의 복귀*,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깁의 재탄생*, 창비, 2002, p.163에서 재인용.
- [7] 김석, *에크라: 라깁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 [8] 이수연, "라깁을 통한 영화분석 방법론의 모색: 라깁의 시선 개념과 <트루먼 쇼>", *라깁과 현대정신분석*, 제6권, 제2호, pp.105-125, 2004.
- [9] 홍준기, "지제크의 라깁 읽기: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을 중심으로", *문학과 사회*, 제52호 겨울호, pp.1880-1899, 2000.
- [10] 조엘 도르, 홍준기·강응섭 엮음, *라깁 세미나 에크리 독해 I*, 아난케, 2009.
- [11] J. Lacan, 홍준기, 김상환· 홍준기 엮음, op. cit., p.86에서 재인용.
- [12]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엮음, *라깁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 [13] 홍준기, 김상환·홍준기 엮음, op. cit., pp.90-97.
- [14] 김석, op. cit., pp.141-143.

- [15] Ibid.
- [16] 김용규, “지적의 판타지이론과 윤리적 행위”, 大同哲學, Vol.23, pp.1-20, 2003.
- [17] 홍준기, 김상환·홍준기 엮음, op. cit., p.79.
- [18] 임우기, 집과 밥과 말과 사랑, 김포천·원우현·김민수·김홍근 엮음, 김수현 드라마에 대하여, 솔, 1998.
- [19] <http://tv.sbs.co.kr/yamang/character02.html>.
- [20] 임옥희, 사랑,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 [21] J. Lacan, 김상환·홍준기 엮음, op. cit., p.109에서 재인용.

#### 저 자 소 개

유진희(Jin-Hee Yoo)

정회원



- 198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학사)
  - 1995년 1월 : Boston University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 이학석사
  - 1995년 11월 ~ 현재 : 한국방송작가 협회 정회원
  - 2003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콘텐츠학부 방송극작과 교수
- <관심분야> : TV 드라마 극작, 시나리오 극작